

2026 제주 민속포럼

제주 민속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모색



2026. 9. 11. 금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 대회의실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2026 제주 민속포럼

제주 민속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모색



제주 민속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모색



구분	시간	내용
등록	13:30~14:00	참석자 등록
개회식	14:00~14:20	축 사: 한동수(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환영사: 김완병(제주학연구센터장)
1부 주제발표	14:30~16:00	- 민속문화의 위기와 재생: 일본의 제도와 과제 마치다 타카시(창원대학교 교수) - 전라도 지역 민속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의 명과 암, 그리고 현장의 생명력 송기태(목포대학교 교수) - 제주도 민속문화의 인식과 진흥 정책의 과제 강소전(제주대학교 강사)
휴식	16:00~16:20	자리 정돈
2부 종합토론	16:20~17:40	- 좌장: 허남춘(제주대학교 명예교수) - 토론: 오영주(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위원회 위원장) 진선희(한라일보 편집국 부국장) 류진욱(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연구원) 박종선(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강수경(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폐회	17:40~17:50	마무리

주제발표

**민속문화의 위기와 재생:
일본의 제도와 과제**



마치다 타카시

창원대학교 교수



민속문화의 위기와 재생 일본의 제도와 과제

마치다 타카시 (丁田隆, 창원대)

민속문화의 위기와 재생

일본의 제도와 과제

1. 들어가며
2. 일본의 제도: 민속문화를 ‘지정’, ‘등록’하는 것
3. 민속문화의 위기와 재생: 재해에 대항하여
4. 나가며



국보(國寶)

2025년에 개봉된 일본 영화

원작: 요시다 슈이치(吉田修一)
감독: 리상일(李相日)

매출: 208억 엔(국내 실사영화 1위)

일본 전통 예능인 가부키(歌舞伎)의
온나가타(女方, 여성 역 남자 배우) 이야기

국보 = 인간국보(인간문화재)
= **중요무형문화재**



霸王别姬(1993)



서편제(1993)

文化庁 文化財DB

국가지정 문화재 DB > 중요무형문화재 > 가부키 > 보유자 정보

重要無形文化財		
分類別に見る		
芸能	199 舞臺	(1件)
	199 舞臺	(6件)
	199 文臺	(4件)
	199 歌舞伎	(6件)
	199 歌舞伎	(4件)
	199 舞臺	(25件)
	199 舞臺	(3件)
	199 舞臺	(2件)
	199 その他	(0件)
	199 舞臺	(12件)
工芸技術	199 舞臺	(18件)
	199 舞臺	(6件)
	199 金工	(5件)
	199 漆工	(2件)
	199 人形	(1件)
	199 歌舞伎 (ばちる)	(0件)
	199 手摺和紙 (てすまわし)	(5件)
	199 舞臺	(0件)
	199 その他	(0件)

중요무형문화재 생존 보유자
(가부키 배우)

尾上菊五郎 (7代目) - 立役
坂東 玉三郎 (5代目) - 女方
片岡 仁左衛門 (15代目) - 立役
中村 東蔵 (6代目) - 脇役
中村 梅玉 (4代目) - 立役
中村 歌六 (5代目) - 立役

13대 市川團十郎
이치카와 단주로



본명: 호리코시 다카토시
명적(名跡): 13대 이치카와 단주로
야고(屋號): 나리타야(成田屋)



초대 市川團十郎
1660~1704



12대 市川團十郎
1946~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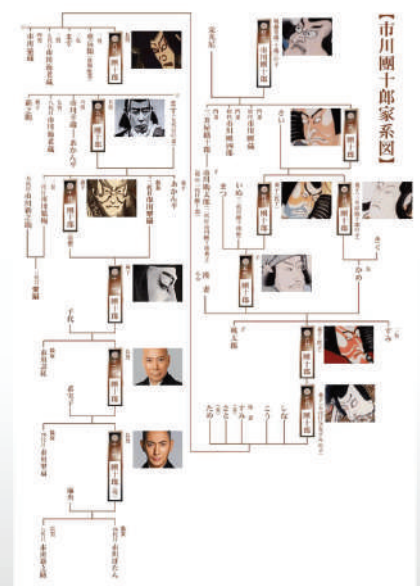


13대 市川團十郎
1977~

7대 신노스케(新之助)

➡ 11대 에비조(海老藏)

➡ 13대 단주로(團十郎)



습명(襲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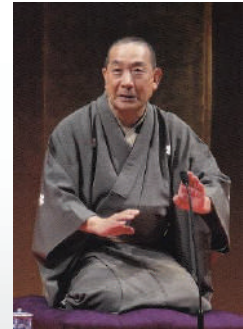
能
[노]



狂言[교겐]



文樂[분라쿠]



落語[라쿠고]



茶道[다도]



華道[꽃꽂이]



相撲[스모]



公예

특정 가문이 전수(이에모토, 家元)
이름을 계승
가부장적 질서와 동성사회성(homosocial)



스모 도장의 폭행 문제



마이크 출신 여성의 UN 인권위원회 고발

- 현대 사회의 법, 윤리, 인권 의식과의 괴리
- 제도권 외부에 존재했던 ‘전통문화’의 특권적 위상
- 다문화 시대 → 외국인의 시선

세습제 도제제 습명제... 전근대적 관습

체벌, 성차별, 혈통주의, 갑질..

무형문화재=연극, 음악, 공예 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산물 중 우리나라에 있어 **역사적** 또는 **예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것(문화재보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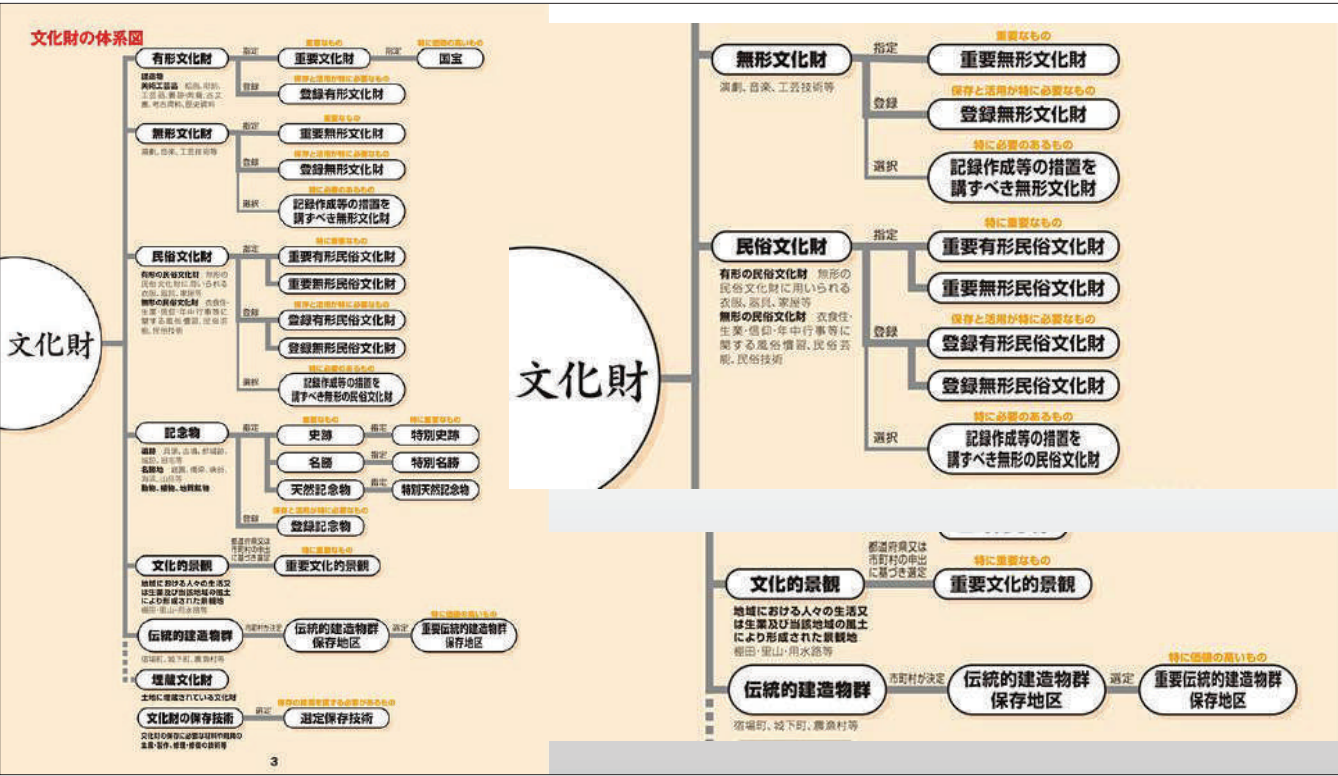
민속문화재=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 행사 등에 관한 풍속 관습, 민속 예능, 민속 기술 및 이들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주택 기타 물건으로서 우리 국민의 **생활 변화 이해에 필수적**인 (문화재보호법)

민속문화의 딜레마

가시적인 형식
노래, 춤, 놀이, 의례, 기술

비가시적인 ethos
신앙, 윤리, 가치관, 세계관

- 가시적인 형식만을 보호
→ 박물관 유물?
- 비가시적인 에토스의 ‘보호’가 가능할까?
- 형식과 에토스를 분리할 수 있을까?
- 전근대적 에토스 중에는 현대 사회의 법
과 윤리와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
- ‘원형’과 ‘변화’의 문제



유형민속문화재



의식주와 농업, 어업, 사냥 등 생산과 생업, 혹은 사람의 일생과 신앙, 연중 행사와 같은 생활 속에서 사용되어 온 도구와 시설

무형민속문화재



축제와 세시풍속, 통과 의례 등 풍속 관습과 민속예능, 그리고 생활과 직업에 관련된 제작 기술 등 민속 기술을 통해 세대에서 세대로 반복해서 전해 내려온 무형의 전승.

문화재보호법의 연혁

1950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1975년 민속문화재(유형 · 무형),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

1996년 등록유형문화재

2004년 문화적 경관

2018년 보존과 활용 양립으로 전환

2021년 등록무형문화재

문화재 정책의 paradigm shift

1) '점'에서 '면'으로(1950~2000년대)

경제 개발에 따라 오래된 시가지, 마을 파괴 위기 →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

2) 엄격한 지정에서 '완만한 등록'으로(1996~)

개조나 현상 변경에 대해 엄격한 절차

→ 근대 건축 등을 일상 생활이나 상점으로 활용하면서 보존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 '등록'

민간이 소유한 친숙한 문화의 활용

3) 보호로부터 활용으로(2018~)

문화재를 관광 자원 및 교육에 적극 활용

시정촌(읍면)이 주체가 되어 '문화재 보존 활용 지역 계획'

문화재 보존 활용 지역 계획

小浜市関連文化財群の地理的分布



민속문화의 위기와 재생: 재해에 대항하여



고베 대지진(1995)



동일본 대지진(2011)



노토반도 지진(2024)



구마모토 지진(2026)



모리구리 시게카즈,
『지조 · 나가야의 역사민속학:
지진을 극복해온 고베, 나가타에서』,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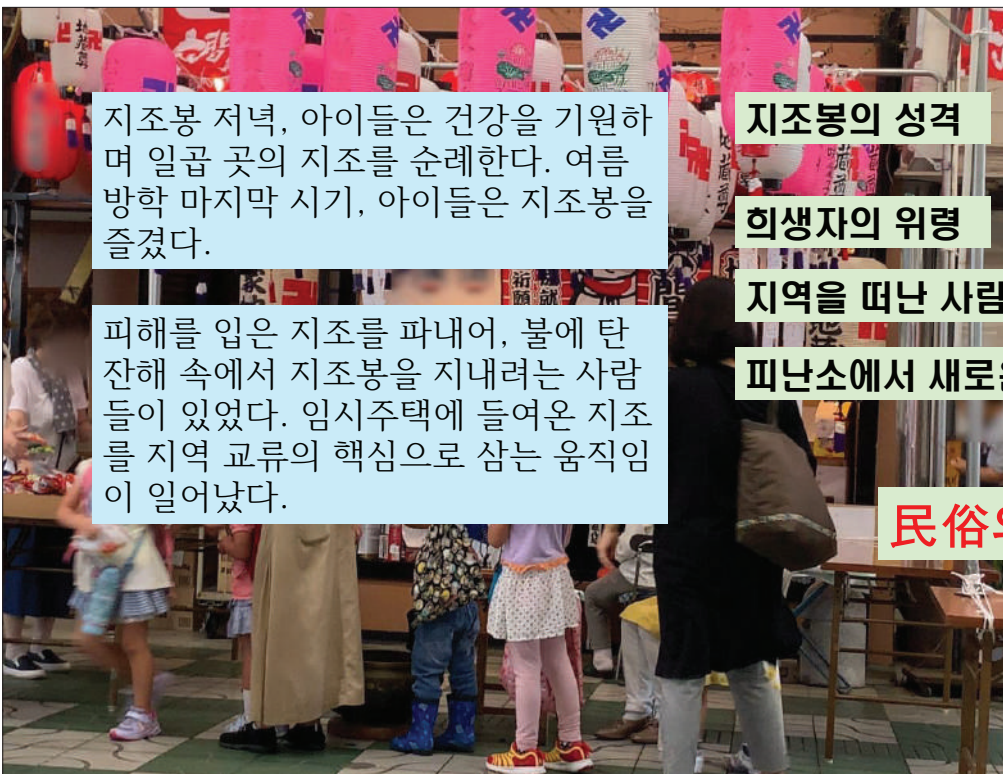
지조(地藏) 신앙



지조봉(地藏盆)
음 7월 24일(양 8월 24일)
지장보살의 연일(緣日)



나가야(長屋)
전근대적 연립 주택



지조봉 저녁, 아이들은 건강을 기원하
며 일곱 곳의 지조를 순례한다. 여름
방학 마지막 시기, 아이들은 지조봉을
즐겼다.

피해를 입은 지조를 파내어, 불에 탄
잔해 속에서 지조봉을 지내려는 사람
들이 있었다. 임시주택에 들여온 지조
를 지역 교류의 핵심으로 삼는 움직임
이 일어났다.

지조봉의 성격

희생자의 위령

지역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모이는 계기

피난소에서 새로운 커뮤니티 만들기

民俗의 再生

東日本大震災と 宮城県沿岸部地域社会の民俗誌

【東日本大震災と
宮城県沿岸部地域社会の民俗誌】

無形民俗文化財が
被災すること

高倉浩樹・滝澤克彦 編

【フィールド災害人文学の構築】

震災後の地域文化と
被災者の民俗誌

高倉浩樹・山口睦 編

『無形民俗文化財が 피해를
入る다는 것』(2014)

『地震 後の 地域文化と 匹
해자의 民俗誌』(2016)



무형문화유산 정보 네트워크



サイトマップ

- このサイトについて
- マップ公開の経緯について
- 出典等について
- ご利用に関して

トップページに戻る

情報まどぐち

無形文化遺産に関する写真・映像などの記録を収めています。これらの記録をお持ちの方、また所在情報をお持ちの方は、ぜひご連絡ください。

→ 詳しくはこちら

このサイトについて

平成23年3月11日に発生した東日本大震災は、震災前の暮らしや地域の伝統に大きな影響をもたらしました。その中で、地域の人々が長い年月できた祭り行事や芸能、手わざや暮らしの知恵など、様々な形の文化遺産も立派にされてい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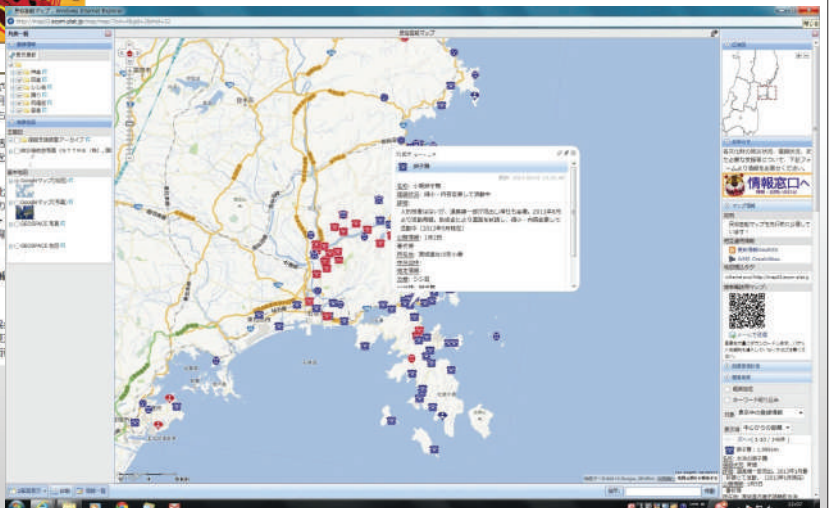
いっぽう復興の過程においては、そうした無形の文化遺産が人々に生きる力を与えること、地域コミュニティの再生を促すこと、地域のアイデンティティに重要な役割を果たすことなどが再認識されています。

そこで、地域の方が今を生きるための心の支えとなるように、また地域文化が継承されていくように、様々な団体や個人で無形文化遺産の復興・継承支援を行っています。本サイトではその一環として、無形文化遺産の所在と継承被災した「無形文化遺産マップ」、関連する写真・映像記録等について検索・閲覧文化遺産アーカイブス」(2016年3月公開予定)を公開しています。

無形文化遺産情報

【協賛団体/50音順】

- 一般社団法人 儀礼文化学会
- 公益社団法人 全日本郷土芸能協会
- 独立行政法人国立文化財機構 東
- 国立研究開発法人 防災科学技術



- 민속문화의 에토스는 오래된 의례와 기술을 지키는 일 뿐만 아니라, 변화 속에서 자신들의 생활과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생활 지식·실천적 지식에 있다
- 제도는 이러한 민속의 에토스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주제발표

**전라도 지역 민속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의 명과 암, 그리고
현장의 생명력**



송기태

목포대학교 교수

전라도 지역 민속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의 명과 암, 그리고 현장의 생명력

2026.09

송기태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원·교양학부)



Contents

- 1 유네스코체제 도입: 문화재에서 유산으로
- 2 국가와 지역의 무형유산 전승지원 제도 비교
- 3 지역의 무형유산 전승지원기관 및 조례 비교
- 4 고창농악보존회가 개척한 한국형 무형유산 전승 시스템

유네스코체제 도입: 문화재에서 유산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체제 속에서 기존 작품과 예술 중심의 문화재에서 공동체의 유산으로

1)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보호대상이 사물에서 관계로 확장

문화재 Cultural Property

가치가 큰 사물·기술을
선별하고 보존하는 체계

지정 · 원형 · 보유자



문화유산 Cultural Heritage

공동체가 과거와의 연속성을
부여하며 정체성을 만드는 과정

전승 · 재창조 · 참여

문화유산화

특정 사물·지식·실천에 공동체가 문화유산의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

2) 2003년 협약에 따른 무형유산 정책의 방향 전환

사물·지식	→	공동체	보호의 주체와 대상 확대
보존	→	민주주의 가치	다양성·상호존중·지속가능성
하향식 집행	→	상향식 참여	공동체의 주체적 관리

정부가 대신 보존하는 정책에서 공동체가 참여해 지속시키는 정책으로

04

3) 전승·재창조·정체성이 무형유산의 핵심

“공동체와 집단이 문화유산의 일부로 보는 관습·표현·지식·기능과 관련 도구·사물·문화공간”

세대 간 전승되며 환경·자연·역사와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재창조

구전 전통·표현

공연예술

사회적 관습·의식·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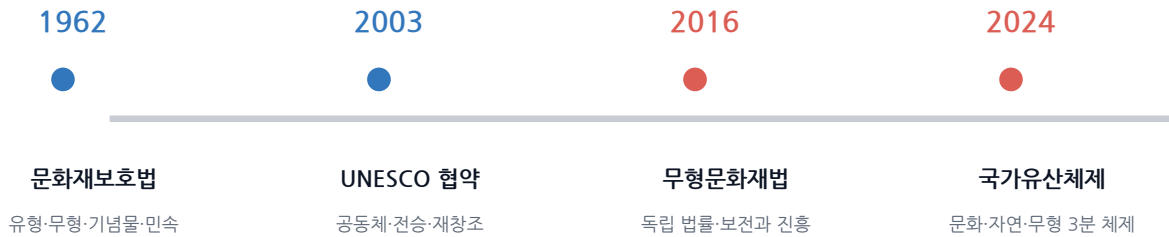
자연·우주 지식

전통공예 기술

정책 기준 인권 · 공동체 간 상호존중 · 지속가능한 발전과 양립하는가?

05

4) 유네스코 협약의 관점이 2016~2024년 국내 법체계에 반영



법률의 변화는 명칭 변경이 아니라 보호범위와 정책수단의 확대 요구

06

5) 역사·기술성에서 공동체 가치와 지속가능성으로

기존 평가

- 역사성
- 학술성
- 기술성·예술성
- 대표성

2022년 지식·생활관습 분야

- 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 기여
-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 기여
- 종목의 이행 빈도와 범위
- 전승주체의 활성화와 지속가능성

변화

“얼마나 오래되었는가”뿐 아니라 “누가 왜 계속 전승하는가”를 평가

07

6) 최근의 방향은 공동체의 생활·지식·사회적 가치 포착

김장문화	나눔·협력·공동체성	2013
줄다리기·씨름	세시풍속·공동등재·협력	2015~
해녀문화·갯벌어로	지속가능성·민간지식	2016·2021
한복생활·율놀이	가족·마을공동체·생활관습	2022
설·단오·추석·동지	공동체가 함께 실천하는 세시	2023

개별 보유자의 기량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공유하는 생활문화 자체가 정책대상

08

7) 국가 정책은 기관·공동체·학교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확장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정보·네트워크·국제협력

국립무형유산원

조사·연구·공연·전시·교육

국가유산진흥원

공동체종목·공모·공예 지원

보편가치

다양성·평화·지속가능성

공동체종목

조사·활동지원 강화

상향식 참여

미래무형유산 발굴·육성

교육연계

대학·특성화고·전수학교

범위확장

근대·생활 무형유산 검토

09

국가와 지역의 무형유산 전승지원 제도 비교

2025년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 계획을 기준으로 본
지방무형유산 정책의 공백과 개선 방향

2025년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 계획 안내

■ 2025년 제1차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 계획	7
■ 2025년 제2차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 계획	11
1. 국가무형유산 신규등록 지원 계획	
2.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전승교육사 포용·촉진 계획	
■ 2025년 제3차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 계획	15
■ 2025년 제4차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 계획	21
■ 2025년 제5차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 계획	25
■ 전승지원 사업별 지원 계획	29
■ 2025년 제6차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 사업별 지원 계획	41
1.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 지원 사업	
2.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주관 전승활동 지원 사업	
3. 무형유산 창립·다리교섭 지원 사업	
4. 마수지 지원 사업(공공)	
■ 국가무형유산 전승사·가나 지원 사업	79
1. 위문금어 수급지역 확대	
2. 공농유·직공·관공·공민	
3. 공개행사·사용되는 주류의 면제	
4. 산학협력교사 자격 제정	
5.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 제정	
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사업	
■ 문화유산·전통·문화유산	83
1. 무형유산정책과	
2. 지원사업과	
3. 전승지원과	
4. 조사연구·기록과	
5. 국립무형유산원	
■ 보유자·보유단체·관련 자로 계층 보호·지원	91
■ 국가무형유산 보유단체·전승지원·활동 지원	97

1)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의 구조: 전승생태계 구축



① 기본 전승지원 : 기초 지원과 성과보상 결합

전승활동 실적을 평가해 연말 장려금도 차등 지급

지원 대상	2025년 기준	정책 기능
보유자	월 200만원	전수교육의 중심
전승교육사	월 90만원	교육 실행과 후계 양성
보유단체	월 380만원	단체 전수교육·운영
자율전승형 보유단체	월 580만원	자율성과 책임 확대
우수 이수자	연 600만원	최초 2년·연 2회 지급

12

② 후속세대의 경우 전수생에서 이수자 활동까지 단계별 지원

전수생 전수장학금 월 30만원 · 최대 5년	이수자 우수이수자 장려금 연 600만원 · 최초 2년	활동 이수자 공연·전시·연구 공연 600만원 · 연구 500만원	성장 이수자 공모공연·레지던시 공연 800~1,200만원 · 공간·재료
--	---	---	---

③ 공개·교육·기획사업을 통한 전승자의 사회적 활동 지원

공개행사 보유자 800만원 이내 보유단체 1,270~3,600만원	전승자 기획행사 보유자 700만원 전승교육사 600만원	찾아가는 무형유산 개인 500만원 단체 600만원	징검다리 교실 개인 550만원 단체 750만원
---	---	--	--

13

④ 취약종목·공간·공예생산까지 전승환경에 대한 별도 지원

취약종목

3년 주기 재선정
재료·공연·임차 직접경비

전수교육관

건립·보수 + 활성화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전통기술

공방 개선·재료 수급
작품구입·인증·디자인

국가계획의 특징

전승자 지원 + 종목 위험 대응 + 공간·시장
기반을 하나의 체계로 운영

14

2) 지역 무형유산 지원 체계

01

보유자·전승교육사

월정 전승지원금

02

보유단체

운영비·사업비

03

공개행사

연 1회 공연·전시

국가무형유산 대비
제도마련이 미흡한 층위



- 이수자와 전수생의 성장경로
- 취약종목별 맞춤지원
- 전문인력·유통·복지·정기조사의 정책 환류

15

3) 지역 무형유산 제도의 보완점

① 이수 이후 지원이 끊기는 “이수자 절벽”



지원 공백이 가장 큼

- 국가: 우수이수자 장려금, 공연·전시·연구, 레지던시
- 지방: 이수증 취득 후 상위 전승자로 인정될 때까지 지원 희박

16

② 전수장학생은 조레보다 실제 선발·지속성이 중요

지방에서 반복되는 문제

- 선발 인원이 적거나 미선발
- 연도별 예산 편성이 불확실
- 보유자 추천 의존
- 장학 종료 후 이수자 지원과 단절



필요한 연결

- 전수생 유입
- 장학·교통·재료비
- 이수심사
- 청년이수자 활동

③ 동일한 지원으로 인한 취약성 문제 해결

전승위험 종목

- 전수생 부족
- 재료 단절
- 시장 소멸
- 공동체 해체
- 보유자 고령화



맞춤형 지원

- 장학금·청년 전승자 고용
- 재료 생산·구입·보관
- 작품구입·공공조달·유통
- 마을·전승공동체 회복
- 기록화·후계자 집중양성

17

④ 정기조사의 환류 제도 마련

정기조사는 현황파악이 아니라 정책제안과 수립을 위해

- 기·예능
- 전수교육
- 전승자
- 경비·시설
- 건의사항

조사 → 환류

현재의 약점
현황 확인·점검으로

- 취약등급
- 지원 차등
- 전승교육사 충원
- 시설 개선
- 기록화 우선순위

공개는 의무 이행이 아니라 전승자 성장과 사회적 수요를 만드는 과정

⑤ 공개행사의 “연 1회 의무공연” 방식에서 전환

- 같은 장소와 구성 반복
- 행정상 실적 충족 중심
- 관객·학교·지역사회 연계 부족
- 이수자의 기획권 부족

현재 전환

- 기획행사와 순회공연
- 찾아가는 무형유산
- 학교·마을 연계 교육
- 이수자 주도 공연·전시

18

⑥ 전수교육관은 건물보다 운영역량 필요

건립·보수

+

상근 전문인력

+

지속 프로그램

기획·회계

교육 개발

아카이브

홍보·관객

시설 관리

지방정책의 전환: 시설비 중심 → 인력·프로그램·운영비의 다년 지원

⑦ 기능종목은 생산과 유통을 통한 생태계의 확장 필요

재료 수급

공방 개선

제작비

작품 구입

공공 유통

디자인 협업

19

지역 무형유산 지원 제도는 6개 축으로

기본

보유자·단체

성장

전수생·이수자

위기

취약종목

활용

공연·교육·유통

기반

공간·전문인력

환류

정기조사·평가

국가무형유산처럼

매년 「시·도무형유산 전승지원 계획」으로 대상·단가·일정·성과 공개

20

지역 무형유산의 새로운 움직임

지역의 무형유산 전승지원기관 및 조례 비교

지역의 무형유산 정책 수립 및 집행 기관 현황

21

1) 국가에는 국립무형유산원, 지역에는 서로 다른 지원기관

국가

국립무형유산원

- 전국 조사·연구
- 기록·아카이브
- 전승지원·교육
- 정책·국제협력

지역

행정부서

지정·인정·예산

문화유산 연구기관

조사·기록·활용

문화재단·전수관

교육·공연·현장지원

지역학 기관

문헌·구술·아카이브

차이

국가는 한 기관에 기능이 모이지만 지역은 여러 기관에 분산

22

2) 지역별 무형유산 관리 기관

지역	중심기관	현재 성격	무형유산과의 관계
경기	경기문화재단 경기역사문화유산원	문화유산 조사·연구·활용	무형유산 활용사업·교육·총람 제작 등 수행
강원	강원역사문화연구원	도 출연 문화유산 전문기관	무형유산까지 설립범위에는 포함되나 실무는 매장·유형유산 비중이 큼
충북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	문화유산 조사·보존·활용	무형유산을 포함한 종합기관으로 확대되는 단계
충남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역사·문화유산 종합연구	무형유산 기록화와 공개행사 모니터링까지 지속 수행
경북	경북문화재단 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 조사·보존	발굴·유형유산 중심, 무형유산 전담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함
경남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역사문화유산 조사·연구	주로 매장유산·역사문화권 연구 중심
전남	전남문화재단 국가유산연구소	문화유산 조사·보존·활용	현재는 고고·유형유산 중심성이 강하고 무형유산 상시관리 기능은 약함

23

①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21년 공개자료 기준

53종목

55종목 중 기록도서 발간

21종목

기록영상 제작

매년 8종목

공개행사 현장 모니터링

왜 모범인가

- 단발성 용역이 아닌 연속 사업
- 책·영상과 현장평가를 함께 축적
- 조사자료를 향후 보존관리 기반으로 활용

조사 → 기록 → 공개행사 평가를 단일 기관에서 총괄

24

② 충북역사문화연구원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

충북 아키비움

- 국가·도·시군 지정유산 통합검색
- 문서·사진·영상·음원·도면 축적
- 무형유산 정기조사 자료와 학술자료 수록
- 무형유산위원회·활용사업 정보 연결

주목할 점

- 매장유산 기관에서 역사문화 종합기관으로 전환
- 무형·유형·자연유산을 같은 정보기반에서 관리
- 미래무형유산 발굴·육성으로 업무영역 확대

25

3) 지역에서 무형유산 활성화 및 개별 지원을 위한 별도 조례 제정

평택	평택농악 등	등급별 월정액	회원 직접지원형
임실	임실필봉농악	회원지원+전수관	생태계·기반형
안산	시 소재 무형유산	회원+장학생	활동조건·성장형
과천	경기소리	이수자 월정액	예산 집행사례형

비교의 핵심: 누구에게 줄 것인가 + 어떤 활동·공간·성장경로와 묶을 것인가

26

① 평택농악은 ‘보존회원 개인’을 등급별로 직접 지원했다

2022년 지급 사례

가급 월 180만 원
20명 이내

나급 월 100만 원
20명 이내

현행 활동기준(2025)

가급 월 12회 이상 · 회당 4시간

나급 월 8회 이상 · 회당 4시간

특별 월 2회 이상

한계 개별 지원까지 진행되었으나, 보존회 내부 갈등으로 지원 중단된 상태

27

② 임실필봉농악은 회원수당을 ‘전승 활동’과 연계하여 설계

제도

- 보존회원 지원 근거를 조례·시행규칙에 명시
- 보유단체가 회원 등급·기준액을 전년 9월 30일까지 제출

현장

- 「임실군 필봉농악전수관 설치·운영 조례」로 교육·공연·축제 거점 운영
- 1970년대부터 대학생 전수교육을 이어온 장기 후계양성 기반

28

지역 무형유산의 한국적 시스템 구축

고창농악보존회가 개척한 한국형 무형유산 전승 시스템

건강한 무형유산 전승집단의 모델

29

고창농악 현황 **고창농악 관계인구 연 3,000명/ 제2의 고향**

<고창농악보존회 조직>

이사회

보존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사 7명

보존회원 84명 (원로, 활동, 유예, 직능, 감사)

고문 2명

<고창농악보존회 운영 및 공연 조직>

사무국 : 국장, 차장, 경영지원팀2명, 문화예술교육팀1명,
기획사업팀4명, 연수레지던시4명, 시설관리1명

학예연구실 1명

문화예술교육원 드림2명

연희컴퍼니 고풍 4명

<고창농악 네트워크>

읍면농악단 및 지역 농악모임 20여 개

마을농악단 4~5개

동호회 4~5개

대학동아리 30여 개

외부 전수 관련 단체(20년 동안 120개 정도)

고창지역 고등학교 6곳 중 1곳

고창지역 초등학교 20곳 중 13곳

중학교 14곳 중 6곳

이수자들의 외부 모임 5개

<1년 평균 공연>

2025년 기준 80~90회

30

1. 지나간 시간, 옛 사람과의 만남

History of Gochang-
Nongak

고창농악 역사



2000년 ~ 2015년
고창농악전수관

2016년 ~ 2026년
고창농악전수관



31

1. 지나간 시간, 옛 사람과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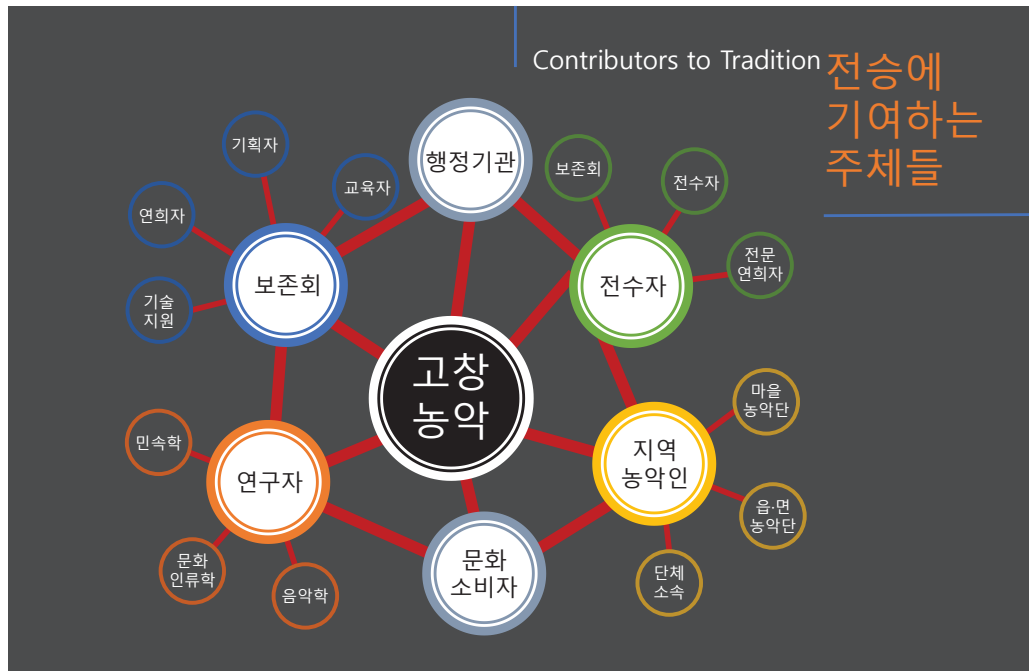
Restoration, Reproduction and Preservation **복원, 재현 그리고 보존**

32

2. 지금 - 여기



33



34

보존회 주요 사업을 통해 본 고창농악의 전승과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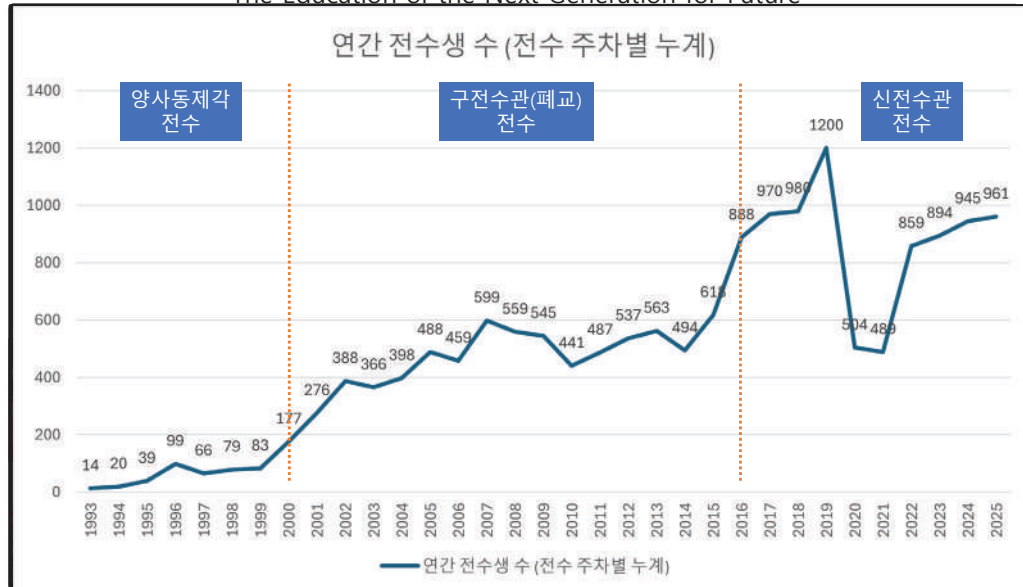
Transmission Process and Communication Style of Gochang Nongak through the Main Business of Conservation Society

연구 / 발간 Research/Publication	- 기록사업 - 서적발간 - 복원사업
교육 / 학습 Education/Study	- 굿피는 고창 : 봄,여름,가을, 겨울 전수 - 읍면농악단 강습 : 면별 파견 강습 - 전통예술학교 : 상시 운영되는 강습
공연 Performance/Show	- 문화유산 공개행사 등 - 창작·기획 공연: 풍무, 감성농악 시리즈 등 - 각종 상설·초청공연 등
축제 Festival	- 고창농악경연대회 - 고창굿한마당 - 꽃대림 축제

35

미래를 위한 후속 세대 양성과 교육

The Education of the Next Generation for Future



36

공연과 축제의 참여와 향유를 통한 소통

Communicating through Participation and Enjoyment of Performances and Festivals



현장의 마당에서 벌어지는 전통의 연행형태의 공연
- 무형유산 공개행사(판굿, 대보름굿, 풍장굿) 등



37

공연과 축제의 참여와 향유를 통한 소통

Communicating through Participation and Enjoyment
of Performances and Festivals

전통농악 공연

무대화 공연

창작 공연

축제 기획

마당에서 연행되던 연행 형태들을 무대 공연화
- 풍무 시리즈 등



38

공연과 축제의 참여와 향유를 통한 소통

Communicating through Participation and Enjoyment
of Performances and Festivals

전통농악 공연

무대화 공연

창작 공연

축제 기획

기존 연행 형태의 해체와 재구성 시도

- 도리화귀경가세, 모양마을 사람들, 이팝:신의꽃, 샤이닝고창, 샤이닝



39

공연과 축제의 참여와 향유를 통한 소통

Communicating through Participation and Enjoyment of Performances and Festivals



농악 문화향유층이 직접 참여하여 즐기며 소통의 자리
- 고창농악경연대회, 고창굿한마당, 대보름축제, 꽃대림축제 등



40

전통. 무대화. 창작공연. 축제

1. 전통농악공연

고창농악 문화유산 공개행사 (1999 ~ 2025)

고창농악 상설공연

2. 무대화공연

풍무(風舞)_고창농악보존회 브랜드 공연 (2008~)

- 문굿, 풍장굿, 도둑잡이굿, 판굿, 고깔소고춤

- 현장에서의 시간, 공간, 절차를 압축적으로 표현하여 무대화

41

전통. 무대화. 창작공연. 축제



42

전통. 무대화. 창작공연. 축제

3. 창작공연

2012년 _ 오동나무집 옛보기 _ 전통 매굿을 공연화

2014년 _ 판굿 1.3 _ 농악의 구조와 표현방법을 재해석해서 연출

2015년~2025년 _ 감성농악 시리즈 (고창농악과 고창의 이야기)

2015년 ~ 2016년 _ 도리화 귀경가세

2019년 _ 광대, 1894

2024년 _ 사이닝고창

2017년 _ 모양마을 사람들

2020년 _ 윤곡로맨스

2025년 _ 사이닝

2018년 _ 이팝 신의꽃

2021년 ~ 2023년 _ 이팝 소리꽃

- 타 장르와 융합(극, 음악, 소리)
- 창작 시스템 구축 (연출, 음악, 안무, 조명, 음향, 의상)

43

전통. 무대화. 창작공연. 축제



44

전통. 무대화. 창작공연. 축제

4. 축제

- 2000년 ~ 현재 _ 정월대보름 축제 (고창의 마을굿축제)
- 2003년 ~ 2021년 _ 고창굿 한마당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축제)
- 2000년 ~ 현재 _ 고창농악 경연대회 (고창군 14개 읍면농악단 축제)
- 2018년 _ 아시아 민속춤 축제 (일본 시시오도리(사슴춤)와 고창농악의 만남)
- 2020년 ~ 현재 _ 고창농악 꽃대림 축제 (한 여름 전통예술축제)

45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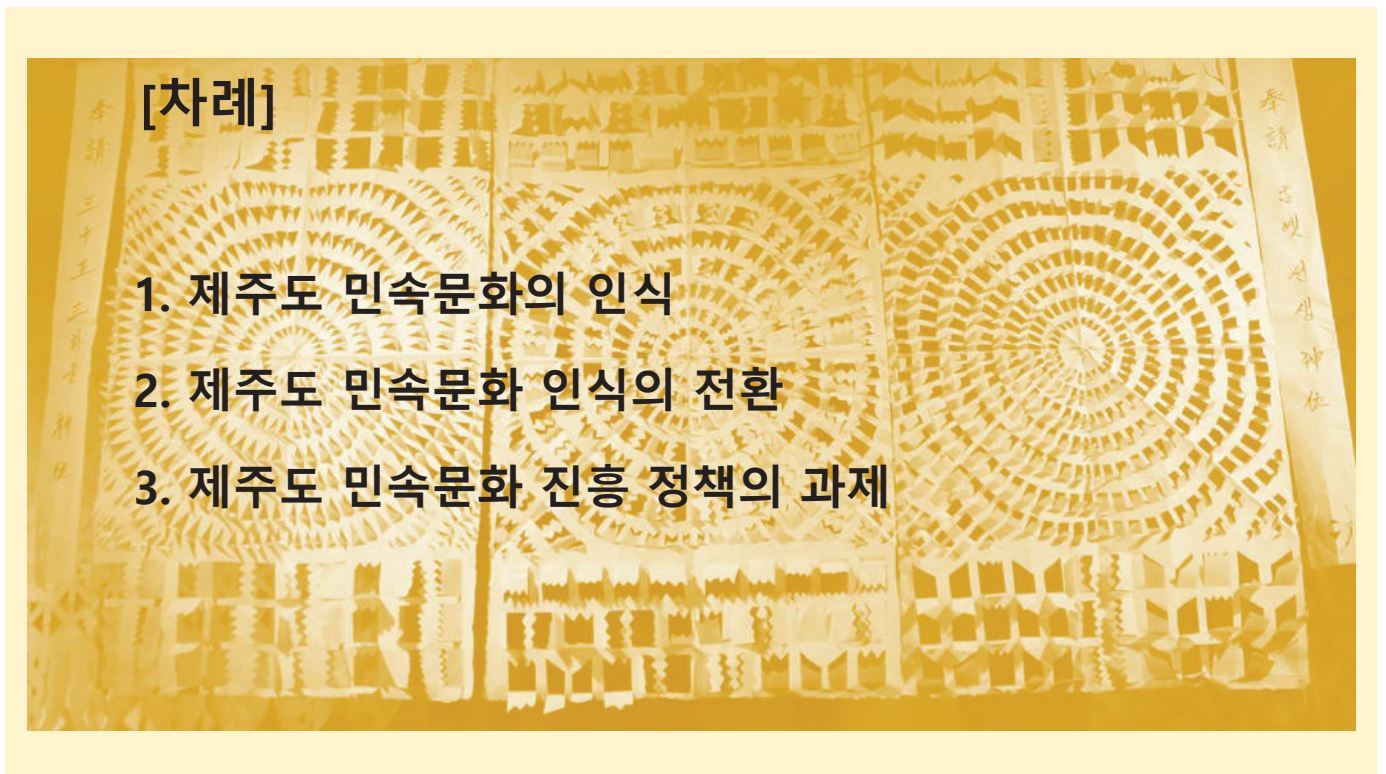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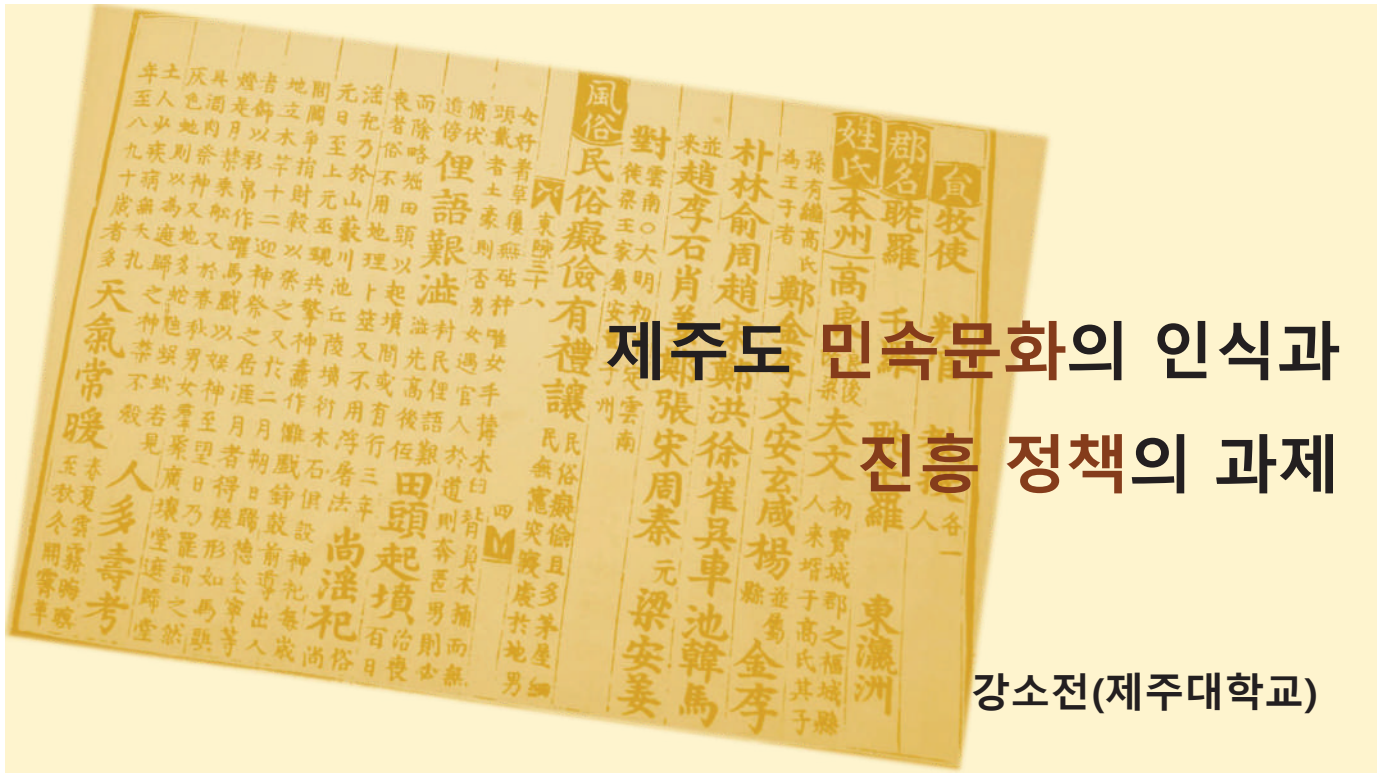
주제발표

제주도 민속문화의 인식과 진흥 정책의 과제



강소전

제주대학교 강사



[들어가며]



『제주문화상징』(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 2008)

‘제주 10대 문화상징물 선정·편찬 사업’

- <제주문화상징 99> 선정

자연, 역사, 사회 및 생활, 신앙·언어·예술 분야 구분

- <제주문화상징 10>의 뚜렷한 민속문화 요소

한라산, 해녀, 제주어, 제주4·3사건, 돌문화,

제주굿, 제주초가, 갈옷, 굴, 오름

- <제주문화상징 99>에도 민속이 저변에 자리 잡고
있어, 민속문화의 중요성이 두드러짐

[제주도 민속문화의 인식: 잔존, 희소, 소멸 위기의 보존]

- 문화유산 지정과 관리

국가무형유산(망건장,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제주민요, 탕건장, 제주큰굿 등)

국가민속문화유산(성읍마을 관련, 내왓당 무신도, 애월 말방아 등)

도무형유산(영감놀이, 민요 관련, 마을제 관련, 공예 관련, 테우문화, 호상옷, 돌담쌓기 등)

도민속문화유산(가옥, 신당, 방사탑, 남방아, 상여, 돌하르방 등)

+ 농업유산, 유네스코 유산 지정 + 비지정 문화유산 점검

- 전통 생업 지원

해녀 2,607명(2025 제주특별자치도 주요행정통계)

- 제주방언 보존

제주방언은 민속문화와 밀접하고, 구전전승 문화의 요소

[제주도 민속문화의 인식: 문화자원 활용 고민]

- 문화관광 접목: 민속문화 홍보, 체험

민속문화 관련 관광지(제주성읍마을, 민속자연사박물관, 해녀박물관, 혼인지, 돌문화공원 등)

민속문화 관련 축제(입춘굿 축제, 탐라문화제, 금능원담축제, 이호테우축제 등)

- '마을 만들기' 사업: 마을자원 활용, 로컬 콘텐츠 발굴 및 개발

제주특별자치도 '2026년 마을 만들기 사업'(총 250억 원 규모)

(제주형 마을 만들기 자체사업(86억원) /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7억원) /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8억원)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150억원)) 등

+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기관 선정)

- 문화콘텐츠 개발: 부가가치 확대

문화예술, 문화산업에서 분야별 민속문화 자원을 문화콘텐츠 요소로 활용하는 시도

<제주콘텐츠진흥원>의 운영

[제주도 민속문화의 인식: 민속문화 인식의 주체, 방법]

- 주체

시대 변화에 따라 **전통적 행위자의 감소와 위축**, 과거 민속문화 원인 요소 축소 및 소멸
주로 소멸/잔존한 과거 민속문화로 인식해, 외부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관점 우위
행정은 주로 문화유산 지정과 관리, 문화관광 중심(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산청, 각 박물관 등)
학계는 민속문화의 조사, 정리, 분석, 연구(제주대학교, 관련 학회와 연구소 등)

- 방법

문화유산과 각 민속문화 분야별 관련 **법률**(예: 문화유산 법률, 해녀와 수산업법)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자치법규정보시스템> 현황)

* 검색어 '민속'(조례 19건): 해당 조례 중 문화유산 8건, 해녀 3건, 공간조성 6건, 문화예술/산업 3건 등(중복 포함)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주 성읍마을 보존 및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등

* 검색어 '무형'(조례 29건): 해당 조례 중 문화유산 8건, 해녀 3건, 문화예술/문화산업 3건, 마을 3건 등(중복 포함)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등

학술연구: 민속학과 구비문학 중심으로 연구, 행정 활동의 근거 자료 제시 역할도 수행

[제주도 민속문화 인식의 전환: 소멸 혹은 소멸 위기의 대응]



<명월리 서문하르방당 지제 제물>

*단골과 심방 감소, 시대 변화, 개발 영향

- 과거부터 지속한 대부분 민속문화: 사라졌거나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 해당 민속문화의 가치(형성, 내용, 공동체, 민속지식 등)를 보존해야 한다.



<덕수리 불미공예>

*생업환경 변화, 현대산업 발달

[제주도 민속문화 인식의 전환: 지속 혹은 변화의 어려움 파악]



김녕리 돛제 돼지고기 제물

*양돈환경 변화, 법령 저촉(돼지고기 조달 애로)

- 과거부터 지속한 일부 민속문화: 나름대로 지속하려 해도 여건이 녹록지 않다.
- 해당 민속문화의 실제적인 현재적 전승 환경을 고민해야 한다.



북촌리 사원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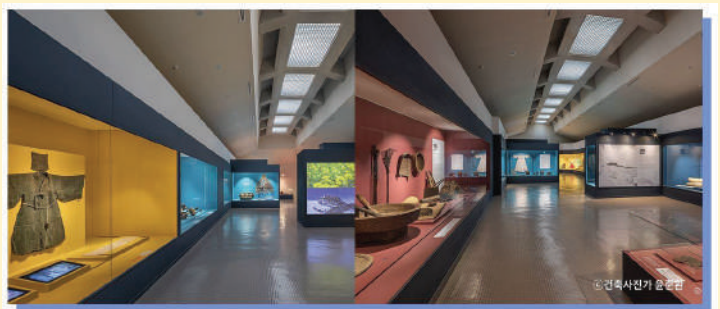
*물 이용환경 변화, 부분적 이용

[제주도 민속문화 인식의 전환: 현대사회 민속과 도시민속 인식]



혼례음식

*'가문잔치'에서 '가문잔치'로 재인식



제2민속전시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문화관광지

*민속자원 전시, 관람객 감상(지역 특색)

- 과거와 현재, 농어촌과 도시의 생활상 공존: **민속인 듯 민속 아닌? 사실 민속인 문화**
- **'생성→변화→소멸→(다시) 생성' 원리 인식: 민속문화가 현재 문화임을 인식**

[제주도 민속문화 진흥 정책의 과제: 현재성 강조]

- 진법(陣法)의 구성

소멸 민속: 기록보고, 박물관, 전시관 등 아카이브

잔존 민속: + 문화유산 지정과 관리, 비지정 현황 파악

지속 민속: + 전승환경 조성, 애로점 개선

변화 민속: + 현대 민속 인식, 조사정리 필요

체험 민속: + 문화관광,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콘텐츠 활용

- 1차적으로 조사, 정리, 연구, 기록 보관(아카이브)을 하고,

2차적으로 각 민속문화 요소의 양상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

- 현재 전승이 지속되는 민속문화 항목을 우선 강조하여 정책 고려

***대표적 사례: 제주굿(+본풀이(신화)), 해녀,**

세시풍속(일부), 일생의례(일부), 식생활(음식문화) 등

[제주도 민속문화 진흥 정책의 과제: 주체성 고양]

- 민속문화 행위자의 중요성

가정: 세시풍속, 일생의례, 민간신앙 중심 부분 지속, 현대화와 가족변화로 지속 약화

마을: 마을제 중심 일부 지속, 마을 환경 변화와 이주민 유입으로 정체 양상 많음

생업공동체: 생업기술, 생업지식 중심으로 일부 지속, 전통생업 환경이 급변

- 진흥 정책적으로 지역적 범주나 추동력을 감안하면

‘마을’을 민속문화 행위 주체로 삼는 것이 효과적일 수밖에 없고

‘마을’을 기준으로 ‘가정’과 ‘생업공동체’를 포괄한다.

- 민속문화의 원동력을 이끌기 위해서는 **행위 주체의 자생성을 인식**하는 데 노력해야 하고, **지역 민속문화 요소가 체화**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향토문화 교육과 전승이 중요하다.)

[제주도 민속문화 진흥 정책의 과제: 경제성 확보]

- 민속문화는 본래 ‘먹고사는 일’에 따른 문화

행위 주체의 경제성: 주체의 참여를 견인하는 요인

관련 분야의 파급성: 민속문화의 지속성 배경

- **현재 ‘먹고사는 일’을 현대 민속문화로 재인식**해야 경제성을 확보

생업 생산물의 생산-유통-가공 등과 민속문화의 접점을 고민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의 연결 관계 도모

- **마을(일정한 지역적 범주)을 중심으로 개별 행위자 주체가 연합**하여

‘작지만 큰’ 민속문화의 경제성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필요해 보임

- 민속이 문화콘텐츠 중요 자원임을 인식하고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등에서 **종사자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 기회를 확대**

[제주도 민속문화 진흥 정책의 과제: 기반성 조성]

- 공공 영역의 역할(자치단체, 의회, 교육청, 관련 기관 등)

민속문화를 과거 문화뿐만 아니라 현재 문화이며 미래 자원으로 인식

민속문화 진흥 관련 구체적인 조례 제정 등 자치법규 지원

민속문화 전담조직 신설 편제 또는 민속문화 관련 조직 총괄하는 위원회 설치

민간, 학계, 예술, 산업, 행정 등이 연결되는 거버넌스 구축해 대표 민속문화 활성화

※ 유·무형유산_세계유산본부 / 해녀_해녀문화유산과 / 마을제_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향토음식_농축산식품국 식품산업과 식품산업팀 / 농업유산_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스마트 농업경영팀

민속문화 집대성, 실질적 아카이브 필요(『제주의 민속(Ⅰ~Ⅴ)』(1993~1998) 이후 30년 지남)

* 가능한 대로 기록(텍스트), 사진, 음원, 영상 등이 어우러지는 체계적 아카이브

* 연구, 전시, 아카이브 등이 한 시설에서 공존하며 시너지를 만들어야 효과

[제주도 민속문화 진흥 정책의 과제: 기반성 조성]

- 민속문화 학계 연구

민속학, 구비문학의 체계적 연구기반(학과, 전공, 교수, 강좌(전공/교양) 등) 거의 미약
구조적인 연구기반이 없어 극소수 개별 연구자의 연구 활동인 경우가 많음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대학교가 협력하여 민속문화 연구교육 체계 구축 필요

: 인력양성, 강좌개설 등 *해양기상학협동과정, 지하수학협동과정 등 참고

“민속문화를 조사, 분석, 연구할 수 있는 민속연구자가 극히 드물다.”

- ‘제주 (민속) 문화콘텐츠 아카데미’(가칭) 신설

현 시점에서 비교적 대중 친화적이고 미래 문화산업의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

제주 민속문화 중 과거 전통, 현재 지속, 미래 부가가치를 연결할 수 있는 항목

대중에게는 교양강좌, 문화예술/문화산업 종사자에게는 실질적 상설/심화 지원교육

(예: 제주신화 아카데미-근래 제주 관련 콘텐츠의 중심 요소)

[맺으며]

* 독일 메르헨가도(동화가도, Märchenstraße)

그림(Grimm) 형제 동화의 발자취

하나우에서 브레멘까지 약 600km 도시 연결코스

브레멘의 음악대,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 등

- 민속문화는 '제주사람' 정체성을 간직,
관광객이 제주를 찾는 이유,
문화콘텐츠 자원으로 미래 부가가치 생산
- 민속문화 콘텐츠 활성화와 경제 효과에
많은 시간과 인내, 노력이 들어감
- '버내쿨러(vernacular)', '포클로리즘(folklorism)' 등의 개념
세계는 이미 민속문화의 활용에 대해 고민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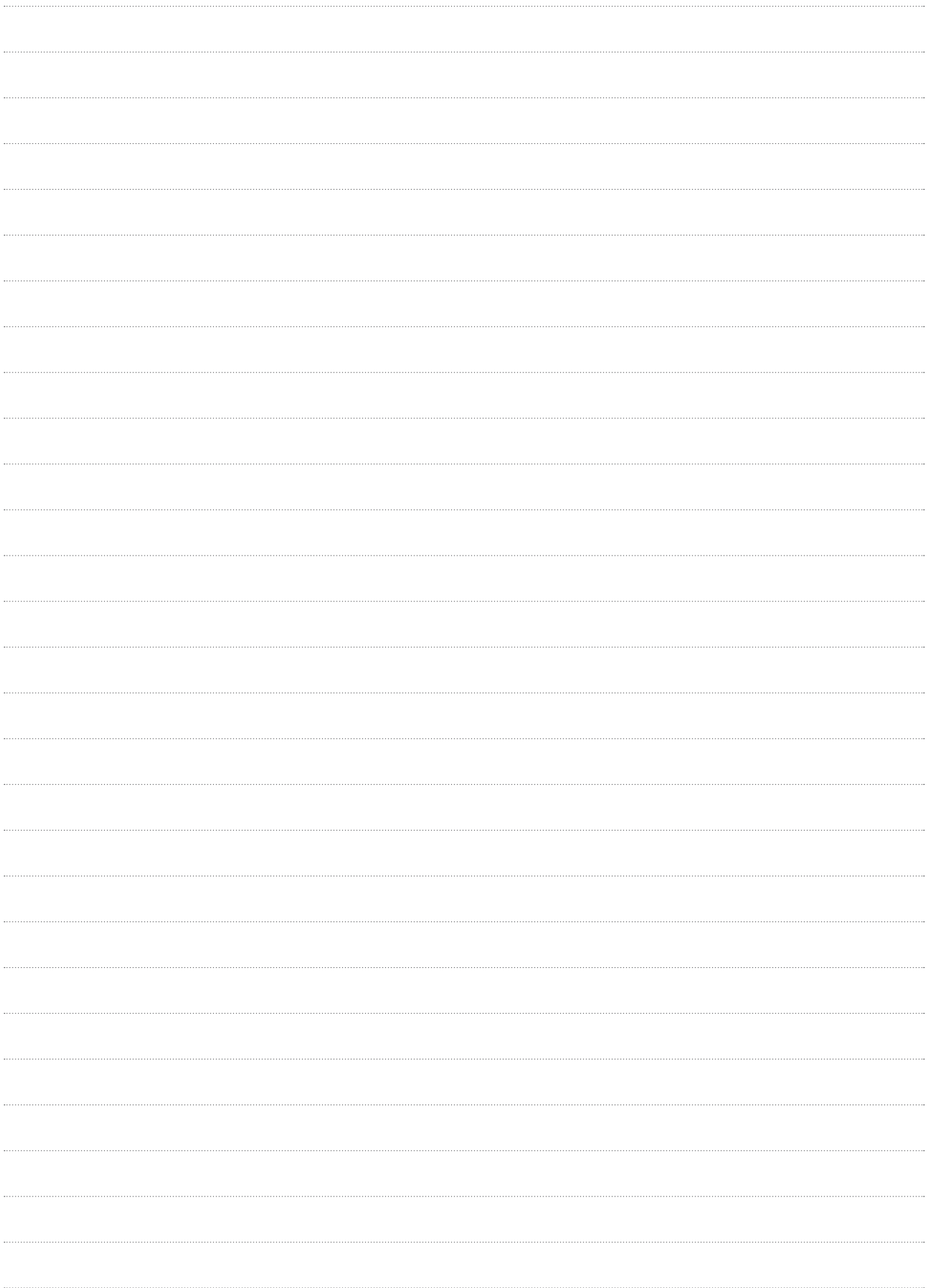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제주민속포럼>이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환경이나마 <제주민속포럼>을 통해서
민속문화의 진흥에 대해 공론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